

일제강점기 부산 곡정 총천사 연구

최은령*

〈목 차〉

- I. 머리말
- II. 일본 조동종의 조선 진출
- III. 부산 곡정 총천사의 역할
- IV. 맺음말

국문요약

부산 총천사(總泉寺)는 일제강점기 일본 조동종이 조선에 개교한 최초의 사찰이었다. 총천사가 위치한 곳은 일제강점기 행정구역상 곡정(谷町)인데, 이곳은 일본인 공동묘지와 화장장이 있던 곳이다. 개항 이후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조계지 안에서 시가지와 가까운 북병산에 묘지를 조성하였고, 1907년 시가지 정비를 위해 북병산에 있던 일본군 부산수비대와 공동묘지 등을 이전하였다. 북병산에 있던 일본인 공동묘지는 곡정(谷町)으로 이전하면서 최신시설의 화장장도 건립하게 되었다.

현재 부산 서구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 입지한 곳이 곡정공동묘지 일대이고, 아미초등학교 자리가 총천사가 있었던 곳이다.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공동묘지였던 곳을 조선전쟁 이후 피란민들이 모여들어 거주지로 변모시켰다. 지금은 부산의 대표적인 산복도로마을로 알려진 곳이고 시간적으로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이곳의 공간성은 역사, 건축, 민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총천사가 위치한 곡정 일대는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와 화장시설로 이루어진 죽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곳에 유일한 종교시설로서 총천사가 입지한 점은 그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한다. 당시 일본의 종교시설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은 일본인의 거주지 주변에 인접하여 위치한 것이 일반적이었고 다른 종단의 불교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부산 곡정 총천사는 일본 조동종이 조선에 개교한 최초의 사찰로서, 일본인 공동묘지와 화장장이 있던 곡정에서 일본인을 위한 장례업무를 주로 전담하며 일본인 사회에 공조하였다. 특히 총천사는 일본의 전쟁을 합리화하는 데 앞장서서 내선불교를 내세우며 일본인의 전쟁 참전자를 위한 법회 및 총령탑 건립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이러한 부산 곡정 총천사는 부산지역에 많은 포교소를 건립하여 오직 일본인을 위한, 일본 정부를 위해서 조선 땅에서 일본 불교 조동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제강점기 부산 곡정 총천사가 있었던 자리에 해방과 함께 교육시설이 들어섰고, 아미초등학교가 지금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학교 뒤편 보이지 않는 능선에 석조보살상과 ‘수호탑’이라는 석조기단, 기타 석재편이 남아있어 과거 총천사가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고, 이 보살상과 석조기단은 조선의 불상과는 전혀 다른 형식이어서 일제강점기 총천사에 있었던 불상인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주제어 : 일제강점기, 부산, 일본 조동종, 총천사, 곡정, 화장장, 공동묘지, 석조보살상

I. 머리말

일제강점기 부산은 가장 먼저 개항된 장소로 일본인 조계지를 중심으로 일본인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활동이 진행되었다. 일본 불교는 부산에서 가장 먼저 진종을 시작으로 조선총독부의 사찰령이 공포되기까지 일련종, 정토종, 조동종, 임제종, 진언종 등 6개 종단 11개 종파를 진출시켰다.

부산 총천사(總泉寺)는 일제강점기 일본 조동종이 조선에 개교한 최초의 사찰이었다. 총천사가 위치한 곳은 일제강점기 행정구역상 곡정(谷町)인데, 이곳은 일본인 공동묘지와 화장장이 있던 곳이다.¹⁾ 개항 이후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조계지 안에서 시가지와 가까운 북병산에 묘지를 조성하였고, 1907년

¹⁾ 본문의 주제가 일제강점기의 총천사에 대한 연구이므로 ‘한국’, ‘조선’에 대한 표기는 한일 강제 병합 전후시기를 구별하지 않고 대체로 ‘조선’이라고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시가지 정비를 위해 북병산에 있던 일본군 부산수비대와 공동묘지 등을 이전하였다. 북병산에 있던 일본인 공동묘지는 곡정(谷町)으로 이전하면서 최신시설의 화장장을 건립하였다.

현재 부산 서구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 입지한 곳은 곡정공동묘지 일대이고, 아미초등학교는 총천사가 있었던 곳이다.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공동묘지였던 곳을 조선전쟁 이후 피란민들이 모여들어 거주지로 변모시켰고, 지금은 부산의 대표적인 산복도로마을로 알려진 곳이고 지난 한 세기 동안 형성된 이곳의 공간성을 역사, 건축, 민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총천사가 위치했던 곡정 일대는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와 화장시설로 이루어진 죽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곳에 유일한 종교시설로서 총천사가 입지한 점은 그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한다. 당시 일본의 종교시설은 일본인의 거주지 주변에 인접하여 위치한 것이 일반적이었고 다른 종단의 불교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일제강점기, 총천사가 있었던 현재의 아미초등학교 교정에는 특이한 형식의 석조불상이 학교 뒤편에 남아있는데 총천사와 관련된 실증적 자료이지만, 총천사에 관해서는 아미동 화장장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언급되는 정도이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²⁾

본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에 진출했던 조동종 사찰인 부산 곡정 총천사의 역사와 종교적 포교 및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일제강점기 작성된 기록물을 조사하여 총천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개원에서 폐원까지의 주요 활동과 관련내용 등을 파악하여 부산 총천사의 기능과 일본 조동종 내에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일본 장제문화와 관련해서도 조선 불교와는 다른 일본 불교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²⁾ 아미초등학교에 남아있는 불상에 대한 자료소개가 있다. 최은령, 『부산 옛 총천사지에 남겨진 불상(자료소개)』, 『불교미술사학』 제25집, 2018, 181~187쪽.

II. 일본 조동종의 조선 진출

1. 일본 불교의 조선 개교

조선과 일본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선린과 대립이 되풀이되는 역사적 관계를 지속해왔다.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일 간의 문화 교류사를 보면, 중세까지 조선은 일본에 대륙문화를 전하는 문화 전달자로서 또 문화 경유지로서 역할을 했다. 신앙체계나 종교의 경우에서도 고대에 있어 대륙을 통한 불교가 조선을 경유해 일본에 전파되었고, 근대 이전까지 일본에서 조선으로 전래되는 경우는 없었다. 한일 간에는 왜관의 설치 운영 및 무역, 일본과의 전쟁, 그리고 이후의 조선통신사의 교류라는 역사적 궤도를 살펴보더라도 일본 종교가 조선에 종교적 목적을 위해 유입된 사례는 없었다. 일본 불교는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진종 본원사(眞宗本願寺)의 별원(別院)을 부산에 설치한 후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³⁾

메이지유신 정부는 천황제 국가를 다지기 위한 종교정책으로 신불분리(神佛分離)를 단행하면서 신도 보급을 강화하였지만, 신도에 의한 교화가 교리상의 한계로 문제가 드러나자 다시 불교를 정치의 일익으로 동원하였다. 또한 일본 불교계도 불교가 새 정부와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워 정부에 협력하는 자세를 취하였으며, 홋카이도[北海島]와 치시마[千島] 개척에 앞장섰고 중국과 조선 등의 해외포교를 전개하였다.⁴⁾

이러한 당시 일본의 종교정책에 부응하여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최초의 일본 종교는 진종(眞宗)이다. 1876년 강화도조약을 강행한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의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완화하려는 의도에서 진종 본원사에 협력을 구하게 된다. 1877년 메이지정부 내무경 오쿠보[大久保利通]와 외무경 데라지마[寺島宗則]는 진종 본원사 관장 겐노[嚴如]에게 편지를 보내 조선 개교를 종용하였고, 겐노는 1877년 8월에 오쿠무라엔싱[奥村円心]과 히라노게이스이[平野惠粹]를 조선으로 파견하였다. 오쿠무라는 일본 정부의 후원 아래 1877년 부산에 진종 대곡과 본원사 별원을 건설하였다. 그 후 1881년 일련종(日蓮宗)의 와타나베이 치운[渡辺日蓮]이 부산에 ‘日本會館’을 건립하였고, 1890년 일련종 교토 묘각

3) ‘일본 불교의 한국 개교’에 대한 이하 본문은 이원범의 책에서 ‘제1장 한국 속의 일본계 종교의 역사’ 내용을 상당부분 참고하여 재인용하였다. 이원범 편저, 『조선 내 일본계 종교운동의 이해』, 제이앤씨, 2007, 11~17쪽.

4) 韓哲曦, 『日本の朝鮮支配と宗教政策』, 未來社, 1988, 14~15쪽.

사(妙覺寺)의 아사히미즈[旭日苗]가 ‘日宗海外宣教會’를 조직하여 본부를 경성에 두고 각지에 지부를 세워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1897년에는 정토종(淨土宗)의 미스미다 모찌몬[三隅田持門]이 부산에 상륙하여 포교를 시작하여 1898년 경성에 개교원을 설치하고 인천, 개성, 평양, 마산 등지로 세력을 넓혀갔다.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조선에서 세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되자, 기존의 진종계의 대곡과 본원사, 본파 본원사, 그리고 일련종, 정토종 이외에 조동종, 임제종, 진언종 등이 조선에 진출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사찰령이 공포되는 1911년까지 조선에 들어온 일본 불교 종파는 당시 일본 내 12개 종단 49개 종파들 가운데 6개 종단 11개 종파에 이르렀다. 통감부 시기의 일본의 조선에서의 불교정책은 아직 완전한 병탄이 이루어지기 이전이어서 일본 불교 세력의 교세 확산을 지원하면서 불교계를 병탄(併呑)하려는 노선을 취하였다.

그러나 1910년 8월 조선을 완전히 장악한 조선총독부는 1911년 6월에 ‘사찰령’을 공포하면서부터 일본 불교 세력이 조선불교계에 영향력을 확산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정책 전환에 따라 총독부는 조선불교 원종(圓宗)과 일본 조동종(曹洞宗)과의 병탄도 승인하지 않았고, 민족주의계열인 임제종도 해산시켰다.⁵⁾

그 후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부터 일본의 각 종교 교단들은 정부의 후원을 받거나 교단 자체의 판단에 의해 조선에 대한 포교를 점차 강화하게 되었고, 일본 불교도 조선에서 세력을 점차 확대해 갔다. 쿠도우[江藤英勝]가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⁶⁾ 조선에 들어온 일본 불교의 경우, 1907년에 사원 수 63개소, 승려 수 67명, 신자 수 재한 일본인 27,955명, 조선인 8,008명이었으며 1938년에 이르러서는 사원 수 727개소, 승려 수 789명, 신자 수는 일본인

5) 이원범, 앞의 책, 14쪽 각주 재인용. 김순석,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7~21쪽.

원종(圓宗)과 일본 조동종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최병현, 「일제의 침략과 불교-일본 曹洞宗의 武田範之와 圓宗」, 『조선사연구』114, 2001. 하지연, 「한말·일제 조일불교연합 시도와 이회광」, 『이화사학연구』30호, 2003. 김귀한, 「한말 일제초 일본 조계종의 조선 포교활동과 불교계의 대응」,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 이원범, 앞의 책, 14쪽 각주 재인용. 당시 조선에서의 일본계 종교에 관한 통계수치는 江藤英勝가 정리한 사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朝鮮ニ於ケル宗教及享祀一覽』(昭和元~13年調査版), 『朝鮮總督府統計年報』(明治14~大正12年調査版·昭和4年調査版), 『朝鮮總督府施政年報』(明治44~昭和4年調査版),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昭和11年5月)의 자료를 정리하였고, 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있어 조선에서의 일본 종교의 현황을 정리하여 『曹洞宗の朝鮮布教概史』(『宗教研究』第315号, 1998), 『日本佛敎の朝鮮布教』(『宗教研究』第319号, 1999), 『神道各敎派の朝鮮布教』(『宗教研究』第323号, 2000), 『日本キリスト敎の朝鮮布教』(『宗教研究』第327号, 2002)를 발표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일본종파의 현황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의거하여 발췌한 것이다.

294,426명, 조선인 15,304명으로 되어있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 불교는 강제병합이후 조선에서 활동은 하였지만, 조선인에 대한 포교보다는 조선 거주 일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 활동한 일본 종교들 중 가장 세력이 큰 교단은 진종계열이었다. 진종의 본원사파는 전술한 것처럼 일본 정부 요청에 의해 조선에 진출한 최초의 일본 불교였고, 그 뒤를 이어 대곡파가 진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1910년 진종 본원사파의 사원수 26개소, 승려 수 19명, 신자 수는 일본인이 7,529명, 조선인이 15,919명이었고, 대곡파는 사원 수 24개소, 승려 수 25명, 신자 수는 일본인이 9,212명, 조선인이 5,120명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1938년 자료에는 본원사파의 사원 수는 134개소, 승려 수는 245명, 신자 수는 일본인이 98,720명, 조선인이 3,163명, 대곡파는 사원 수는 90개소, 승려 수는 84명, 신자 수는 일본인이 46,390명, 조선인이 1,973명으로 되어있다.

1910년 조선인 신자 수가 합하여 2만 여명이었던 것이 1938년에 5천여 명으로 줄어든 것은 총독부의 초기 유화 정책으로 종교를 이용하던 것에서, 1911년 사찰령 공포와 함께 조선불교를 직접 관리하게 됨으로써, 일본 불교의 조선인에 대한 포교와 확산이 어렵게 된 점에 기인한다. 한편 진종계의 다른 교파들(산원파, 불광사파, 흥정파, 목변파)도 한일강제병합을 전후하여 조선에 진출하였으나 교세는 미미하였다.

그 다음으로 규모가 컸던 조동종은 1910년 사원 9개소, 승려 수 7명, 신자 수는 일본인이 3,710명, 조선인이 1,010명이었고, 1938년 사원 117개소, 승려 수 94명, 신자 수는 일본인이 41,460명, 조선인이 3,908명이다. 정토종은 1910년 사원 29개소, 승려 수 23명, 신자 수는 일본인이 6,293명, 조선인이 5,343명이었고, 1938년 사원 56개소, 승려수는 79명, 신자 수는 일본인이 27,213명, 조선인이 422명이었다.

조동종 다음으로 일련법화종(日蓮法華宗) 계열(일련종, 법화종, 본문법화종, 현본법화종, 불수불시파)은 1915년 일련종 사원이 15개소, 1916년 법화종 사원이 1개소, 본문법화경 사원이 8개소, 그리고 1922년 현본법화경 사원이 1개소 설치되었으며, 불수불시파는 1933년에 1개소를 설치하였다. 승려 수는 1910년 일련종 승려가 10명, 1915년 법화종 승려가 1명, 1916년 본문법화경 승려가 3명, 1922년에 현본법화경 승려 1명, 불수불시파는 1933년에 1명이 조선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자 수는 1910년 일련종의 일본인 신자가 2,190명이며, 조선인은 1916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7명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있고, 다른 교파는 1915년 법화종이 일본인 신자만 771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938년에 이

르러서는 일련법화계열 전체 사원 수는 74개소(일련종 48개소, 법화종 1개소, 본문법화종 23개소, 현본법화종 1개소, 불수불시파 1개소)이며, 전체 승려 수는 65명(일련종 47명, 법화종 1명, 본문법화종 15명, 현본법화종 1개, 불수불시파 1개)이며, 전체 신자 수는 일본인이 25,310명(일련종 17,194명, 법화종 1257명, 본문법화종 6,291명, 현본법화종 437명, 불수불시파 131명)이며, 조선인은 1,166명(일련종 97명, 법화종 0명, 본문법화종 1,054명, 현본법화종 14명, 불수불시파 1명)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工藤가 정리한 자료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일련종 계열로서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들어온 교파로 본문불립강(本門佛立講)이 있다. 본문불립강은 1905년부터 부산에서 포교를 시작⁷⁾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1912년 승려 야스다 [安田]가 부산에 長松寺를 세우고 포교하다가 1913년 佛立教會라는 간판을 걸고 서울에 학송사를 창건하였다고 한다. 당시 교세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일제강점기의 정확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⁸⁾

진언종 계열(진언종연합, 신의진언종지산파, 신의진언종풍산파, 고의진언종, 제호파, 제호파수협도, 선통사파, 동사파)은 1910년 진언종연합(사원 수 13개소, 승려 수 9명, 신자 수는 일본인 4,431명, 조선인 0명)을 시작으로 1915년에 신의진언종지산파(사원 수 6개소, 승려 수 3명, 신자 수는 일본인 700명, 조선인 0명), 그리고 1916년 고의진언종(사원 수 3개소, 승려 수 2명, 신자 수는 일본인 763명, 조선인 35명), 1917년 제호파(사원 수 1개소, 승려 수 4명, 신자 수는 일본인 1,254명, 조선인 30명), 제호파수협도(사원 수 2개소, 승려 수 1명, 신자 수는 일본인 500명, 조선인 0명), 그리고 1932년에 선통사파(사원 수 1개소, 승려 수 1명, 신자 수는 일본인 150명, 조선인 0명), 1933년 동사파(사원 수 4개소, 승려 수 1명, 신자 수는 일본인 64명, 조선인 0명)가 차례차례 조선에 사원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1938년 자료에 의하면 진언종 계열의 전체 사원 수는 186개소(진언종연합 49, 신의진언종지산파 38, 신의진언종풍산파 23, 고의진언종 14, 제호파 12, 제호파수협도 32, 선통사파 3, 동사파 15개소), 승려 수는 155명(진언종연합 자료부

7) 이원범, 앞의 책, 16쪽 각주 재인용. 井上順孝他, 『神宗教事典』, 弘文堂, 1990, 652쪽.

8) 이원범, 앞의 책, 16쪽 각주 재인용. 원래 학송사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願堂이었다고 한다. 고종 황제로부터 갖과 가사를 하사받아 지금도 보관하고 있으며, 이방자여사도 참배를 했었다고 한다. 이 여사는 본문불립종의 사찰을 왕래하였고, 서울의 신청사에 이방자여사의 그림과 사진이 보관되어있다. 현재까지도 학송사에서는 고종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원범 외 4인, 『한일종교의 상호수용실태에 관한 조사 보고(학술진흥재단기초학문연구:2003-072-BS-1017)』, 2004, 125쪽 참조.

재, 신의진언종지산파 22, 신의진언종풍산파 9, 고의진언종 53, 제호파 11, 제호파수협도 55, 선통사파 2, 동사파 3명), 신자 수는 일본인이 288,780명(진언종연합 23,084, 신의진언종지산파 133,794, 신의진언종풍산파 43,970, 고의진언종 1,092, 제호파 41,535, 제호파수협도 40,604, 선통사파 1,397, 동사파 3,304명), 조선인이 20,179명(진언종연합 403, 신의진언종지산파 2,648, 신의진언종풍산파 14,018, 고의진언종 0, 제호파 938, 제호파수협사진 1,117, 선통사파 18, 동사파 1,037명)으로서 신의진언종풍산파에만 1만 명이상의 조선인 신자가 있고 나머지 교파의 조선인 신자 수는 미미하다.

이외 임제종, 황벽종, 천태종, 화엄종 등 다른 불교 종단과 교파가 조선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였지만, 1938년 자료에 의하면 신자 수는 천 단위로 교세는 미약하였다.

이처럼 일본 불교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 활동을 하였지만, 총독부의 종교정책이 조선불교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의 활동을 위한 총독부의 지원이나 후원은 받지 못하였으며 신자들은 조선인보다는 대부분 재조 일본인들이었다. 그 후 일본 불교는 해방과 동시에 철수하였고, 남은 소수의 조선인 신자들도 흩어져서 조선 땅에서는 더 이상 그 명맥을 유지할 수는 없었다.⁹⁾

2. 일본 조동종의 부산 진출

일본 조동종이 조선 포교에 관심을 가진 것은 러일전쟁 이후였다. 조동종은 일본이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자, 조선에 대한 포교활동을 본격적으로 계획하였다. 그 이전에는 종단의 공식적인 개교는 아니었지만, 승려들이 개인적으로 조선에서 포교활동을 진행하였다.

조동종 해외포교회는 1899년 ‘朝鮮布教趣旨書’를 반포하고, 1901년 마추 무라 료칸[松村良寛]을 부산에 파견하였다. 해외포교회에서는 조선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나라이며, 일본과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로 지금 조선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조선에 개교를 한다는 포교의 취지를 밝혔다.¹⁰⁾ 이후 조동종 승려들이 조선으로 건너와 총천사(總泉寺), 서용사(瑞龍寺), 일한사(日韓寺), 대전사(大田寺), 용암사(龍巖寺) 등 포교소를 건립하여 포교활동을 하였다.

9) 이원범, 앞의 책, 17쪽.

10) 김귀한, 『한말 일제초 일본 曹洞宗의 조선 포교활동과 불교계의 대응』,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0쪽(『宗報』69, 1899, 13~14쪽)

표 1. 조동종 승려의 조선에서 개인 포교¹¹⁾

사원	소재지	건립	포교사	비고
충천사	釜山 草場頂 1丁目	1902년 5월	松村良寛	1901년 부산에 왔고, 1904년 조동종에서는 '朝鮮駐在開教師'로 임명, 같은 해 병사함
서용사	京城 龍山 祝町	1905년 12월	富士洞然	1903년 조선에 옴
일한사	京城 本町 8丁目	1906년 봄	大陸大定	1906년 경성으로 와서, 인천에 觀音講을 조직하고 포교활동 함
대전사	大田 本町	1906년 3월	鶴田機雲	1905년 대전에 옴
용암사	龍巖浦	1906년 9월	平山仁鳳	군정 숙소를 개조, 1906년 9월 일본 육군이 철수하면서 점령 가옥을 하사하여 일본군의 압록강 군상록지를 기념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곳을 개수하여 太平寺, 龍巖寺라고 칭함

조동종은 1906년 12월 10일 제10차 조동종회의에서 청한시찰비(淸韓視察費)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兩本山淸韓特派慰問追弔及視察費支出의 件'을 가결시켰다.¹²⁾ 만주와 조선에 대한 시찰은 교학부장 [新井石禪]이 중심이 되었으며, 조선시찰은 1907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였고 부산에 있던 포교사 오사다 간젠[長田觀禪]이 수행하였다. 아라이 세키젠[新井石禪]의 조선시찰은 종단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개교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개교시 포교소를 이용하고 포교사와 신도들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찰의 여정을 보면, 조동종 승려가 개인적으로 개교한 곳을 조사하였고, 범어사와 통도사를 방문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군대를 위문하였으며, 관공서와 사회단체 및 학교와 병원 등을 방문하였다. 그는 조선 시찰 후 일본으로 귀국하여 직접 조선 개교에 관한 규정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1907년 12월 4일 제11차 조동종회의에 '曹洞宗韓國開教規程'¹³⁾을 제출하였다.

11) 위의 논문, 11쪽, 표1 재인용.(사원의 건립연대는 사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宗報』를 따름)

12) 앞의 논문, 11쪽(『宗報』241, 1907, 21쪽)

13) 앞의 논문, 13쪽(『宗報』268, 1908, 7~8쪽)

曹洞宗韓國開教規程

제1조 종무원은 조선의 중요한 곳에 포교소를 설치하여 左記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선 주재의 문무관료 및 거류인민에게 포교할 것.

일본 불교의 각 종파는 경쟁적으로 조선 침투를 모색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찰이나 포교소를 세우는 것보다 조선의 기존 사찰을 장악하고 조선 승려들을 포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상당수의 사찰들이 일본 불교 각 종파의 말사로 편입되었다. 1906년 11월 『宗教의 宣布에 관한 規則』(統監府令 제45호)은 조선에서 활동하는 신도·불교 기타의 종교에 속하는 모든 종파의 일본인 포교자를 대상으로 통제하는 조치를 내렸다.¹⁴⁾

조동종은 개교 초기 1908년 7월 30일 다케다 한시[武田範之]¹⁵⁾를 조선의 포교관리로 임명하였는데 그는 조동종 승려로서 정치적 배경과 조선불교계에서의 위치를 활용했던 것이다. 앞서 조동종의 관장 이시가와[石川素童]는 1908년 6월 5일에 통감 이토 히로부미에게 ‘韓國佛教寺院財産保護의 件에 관한 特別請願’을 제출하여 다수의 조선사원이 조동종 계열의 일본사원에 관리청원을

2. 조선 주재의 守備軍隊의 위문 및 이들에게 포교할 것.
3. 조선 관민에게 포교하고 조선의 승려를 교도할 것.
4. 필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해 거류인민 및 조선인민의 자제를 교육할 것.

제2조 좌기 각 所를 제1기 開教地로 하고, 점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것.

京畿道-京城-龍山-仁川, 慶尙南道-釜山, 平安南道-平壤, 平安北道-龍巖浦, 忠清南道-大田 (前記 외 포교가 필요하면 어느 정도 개교에 便宜한 지방에 한해서 臨機布教를 개시할 수 있다.)

제3조 조선에 관리 1명·포교사 약간 명을 둘 것.

제4조 관리는 경성에 주재하고 종무원의 명령을 받아서 각 포교소를 감독한다. 개교사업을 總理하는 포교사는 擔任 布教所에 주재해 종무원 또는 관리의 지휘를 받아 포교의 사업을 관장하고 관리가 없을 때는 포교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포교소는 모두 3년을 기해서 維持·獨立의 기초를 확정하고 兩本山別院 또는 사원조직을 만들 것.

제6조 종전 本宗 僧侶 또는 信徒의 독립 경영에 관계하는 寺院 및 布教所는 그 志望에 의해서 그것을 변경해 宗務院의 直營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細則은 종무원에서 별도로 그것을 정한다.

14) 1906년 11월 17일 統監府令 第45號로 반포한 『宗教의 宣布에 관한 規則』은 전문 8조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승려 가운데 일제의 위세를 업고 부당한 포교활동을 하거나, 일본승려들이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조선사찰을 강탈하려 함으로써, 일제의 조선병합 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여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통감부령 제45호를 발표하였다. 최병현, 위의 논문, 96~98쪽.

15) 다케다 한시[武田範之, 1863~1911]는 명성황후 시해사건의 주역으로 이후에도 조선에 계속 머물면서 1901년 낭인(浪人)단체 흑룡회(黑龍會) 조직을 주도하는 등 일제의 조선침략 최전선에 있던 인물이었다. 1908년 원종사에 설립된 원종(圓宗) 종무원은 이회광을 종정, 다케다 한시를 고문으로 추대하였는데, 시천교의 고문이며 일진회의 상담역이었던 다케다가 원종종무원의 고문이 된 점은 원종종무원의 출발에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회광은 다케다와 책모하고 조선의 원종과 일본의 조동종의 병탄을 기도하여 1910년 9월 72개 사찰의 위임장을 얻어 내어 일본에 건너가서 조동종 관장과 교섭하였다. 다케다는 원종과 조동종의 협약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역설하기 위해 『圓宗六講論』(1911)을 저술하였다. 조동종 다케다 한시와 조선 원종 이회광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주5) 논문 참조.

의퇴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선정부와 합의해서 관리청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였다. 다케다 한시는 경성에 조계사를 설립하고 1909년 용산에 서용사(瑞龍寺)를 건립하여 조동종의 포교 근거지로 삼았다. 다케다의 포교활동은 1910년 8월 22일 일제에 의한 조선강점이 이루어지자, 10월 6일 원종종무원 대종정 이회광과 조동종 종무대표 弘津悅三 사이에 '聯合條約'¹⁶⁾을 체결하였다. 7개조의 이 조약은 표면상으로 대등한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제적 내용은 원종을 조동종에 예속시키는 것이었으며 조선의 불교도 일본의 특정 종파에 병합된 것이었다.

일본 조동종은 협약이 이루어진 직후 조선총독부에 원종종무원의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다음해까지 유보되었고, 총독부는 1911년 6월 3일 '寺刹令'을 반포하여 조선의 모든 사원을 직접 통제하는 체제로 하였고 일본 불교와의 연결을 일체 배제하였다.¹⁷⁾

Ⅲ. 부산 곡정 총천사의 역할

1. 총천사와 포교소

부산 아미동의 산복도로 마지막 자락에 아미초등학교가 있다. 학교 경내에는 특이한 불상 1구가 있는데, 이 불상은 초등학교 내에서도 외부인 출입금지 지역이고 학교 뒤편의 비탈진 언덕을 올라가야 겨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그

¹⁶⁾ 최병헌, 앞의 논문, 111쪽(高橋亨, 『李朝佛教』, 1929, 922쪽)

조선 전체의 원종종무원은 조동종과 完全且永久히 연합동맹하여 불교를 확장할 事.

조선 원종종무원은 조동종 종무원에 顧問을 依屬할 事.

조동종 종무원은 조선 원종종무원의 설립인가를 득함에 斡旋의 勞를 取할 事.

조선 원종종무원은 조동종의 포교에 대하여 상당한 편의를 圖할 事.

조선 원종종무원은 조동종 종무원에서 布教師 若干員을 招聘하여 각 首寺에 배치하여 一般布教及青年僧侶의 教育을 囑託하고 又は 조동종 종무원이 필요로 인하여 포교사를 파견하는 時는 조선 원종종무원은 조동종 종무원의 지정하는 地의 首寺나 禪 寺院에 宿을 定하여 일반포교 及 청년승려 教育에 宗사케 할 事.

本締盟은 쌍방의 의가 불합하면 폐지변경 或 改정을 爲할 事.

本締盟은 其管轄處의 승인을 득하는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함.

¹⁷⁾ 최병헌, 앞의 논문, 112~114쪽. 일본 조동종은 조선총독부로부터 원종종무원의 인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을 제대로 인식 못한 소치였다. 이용구의 일진회가 조선강점 직후인 9월 13일 해산명령을 받고 25일에 해산된 것과 이회광의 원종종무원에 대한 인가가 유보된 것은 서로 무관한 것일 수 없다.

존재가 일반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불상은 학교 내 신축공사로 인해 원위치였던 학교 정문 옆에서 현재 위치로 이전되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1998년에 작성된 안내판이 함께 있어 이 불상의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다.

“우리 학교의 자리는 지금부터 약 100년전 일본 사람이 지은 총천사(總泉寺)라는 절이 있었던 곳으로 이 불상은 그 당시 절과 함께 건립되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절은 없어졌지만 그대로 남아있던 이 불상을 한때 일본 사람이 옮겨 가려다가 사상자가 발생하여 포기하였고, 그 후로도 불상을 훼손하는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한다. 불상이 이곳에 세워진 후부터는 안전하고 위험지역인 층계와 옹벽이 많은 우리 학교에서 큰 사고나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해마다 석가탄신일에는 이웃주민들이 등을 달고 제를 지내며 각자의 소망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 불상을 찾아오고 있다.

1998년 5월 3일 아미초등학교장”

불상의 뒤쪽, 아미초등학교 뒤편 담벼락에도 다른 안내판이 설치되어있다.

“일본 조동종 총천사, 일본은 신성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강제병탄하였다. 36년간 조선민족의 언어를 빼앗고 이름도 빼앗아갔다.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 중노동에 배고파 죽기까지 했다. 일본은 지난 역사를 미화하고 왜곡하면서 우경화시키고 있다. 일본 조동종 長田 觀禪 승려는 1907년 釜山 谷町(현재:아미초등학교)에 본사를 두고 시내 여러 곳에 말사를 두면서 일본 천황제국가를 찬양하고 앞장섰다. 일본 조동종 종파인 아오모리(靑森) 운상사(雲祥寺) 一戶 彰晃은 지난 과거의 일본이 잘못된 역사 앞에 참회와 사죄를 조선 국민들과 당시 총천사에 세워진 관세음보살님께 빕니다.”

불상은 ‘수호탑’이라는 높은 장방형의 돌기둥 위에 모셔져있는데 앉아있는 석조보살상이다. 보살상은 머리의 보관 중앙에 화불이 있어 관음보살상으로 판단되며 보살상의 상호, 수인, 보관, 착의법 등에서 조선의 전통적인 불상과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일본의 불상으로 옛 총천사에서 모셨던 불상으로 이해된다. 보살상은 양손을 가슴 앞에서 간격을 두고 마주한 형태의 수인을 하고 있다. 자세는 결가부좌하여 곧은 자세로 앉아있으며 천의식 착의를 하여 신체의 노출이 있지만 양감 표현이 적다. 귀, 목, 팔, 손목에 간단한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다. 머리는 높은 보계형식에 중앙에 화불이 있고 그 좌우로 위로 말린 고사리형태의 문양으로 장식한 보관을 착용하였다. 뒤에는 보관을 묶은 매듭끈이 표현되었고, 어깨와 등 뒤로 머리카락이 길게 내려와 있다. 얼굴은 꼭 다문 입술, 뚜렷한 이목구비, 좁은 이마에 작은 백호 등 차분한 분위기이다.(사진 1~사진 4)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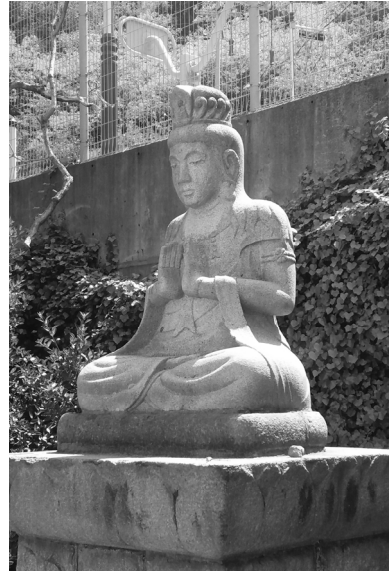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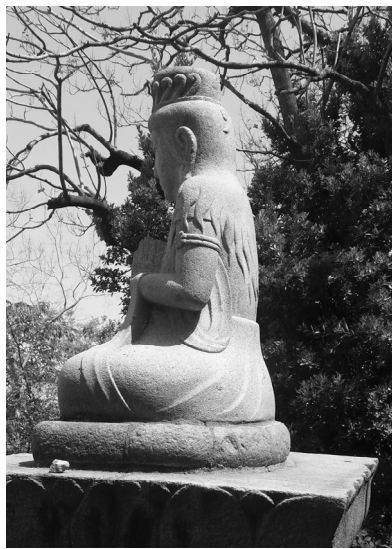


사진 3



사진 4

보살상은 표면이 매끄럽고 잘 다듬어진 석재인데 정확한 암석의 재질은 밝히기 어렵고 불상의 아래에 있는 ‘수호탑’이라고 정면에 적은 화강암의 석재와는 차이를 보인다. 불상 아래의 돌기둥처럼 높은 ‘수호탑’은 상단과 하단에 연꽃을 조각하여 대좌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수호탑’의 뒷면에는 명문을 기록



사진 5. 비천상 조각편,
부산 아미초등학교

한 것으로 보이는 방형의 구획이 있으나 인위적으로 훼손되어 글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수호탑의 한글 표기도 어느 시기에 바탕칠을 하고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수호탑의 형태는 일제강점기 건립되었던 충혼탑(충령탑)의 석조 축대 모습과 유사하여 당시 총천사의 역할을 추정하는 또 다른 표상으로 생각된다.¹⁸⁾ 현재 불상의 앞과 주변으로 연꽃장식의 석조물, 용도 미상의 석재 편 일부가 흩어져있다.(사진 5)

이 보살상의 조성연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제자료는 현재 없지만, 총천사 내에 봉안되었고 총천사의 존속기간을 고려

하여 1900년대 전반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부산의 중심지였던 현재의 서구, 동구지역에서 총천사 보살상과 같은 일제강점기의 일본 불상들이 확인된다.¹⁹⁾

부산 아미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던 부산 총천사는 일본 조동종(曹洞宗)이 조선에서 최초로 본격적으로 개교(開敎)활동을 시작했던 사찰이다. 총천사는 1900년 전후에 조선 포교를 꿈꾸었던 무라마츠 요시히로(村松良寛)에 의해 기초가 다져졌다. 1908년 2월 15일 발표된 아라이 세키젠의 ‘조선개교규정’을 살펴보면 조동종의 목적이 여실히 드러난다.

종규 제12호 조동종조선개교규정

제1조 종무원은 조선의 중요한 지역에 포교소를 설치하고 하기 각 호의 사업을 거행한다.

1. 조선 주재 문무 관료 및 거류민에게 포교할 것
2. 조선 주재 수비 군대를 위문하고 그들에게 포교할 것
3. 조선 관민에게 포교하고 조선의 승려를 교도할 것
4. 필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거류민 및 조선민 자제를 교육할 것

¹⁸⁾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충혼탑의 완전한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는 않지만, 당시 전국적으로 많이 건립되었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충혼탑(忠魂塔)의 형태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충혼탑의 형식과 유사하다, 일본신사 혹은 일본 관련 시설물에 충혼탑이 건립되었다는 등의 논란이 있다.

¹⁹⁾ 이숙희·이경화·최은령, 『근대개항도시의 불교문화 자취』 인천역사문화총서87, 인천광역시, 2019. 이경화, 『일제강점기 목포 유달산의 弘法大師像과 88靈場』, 『동북아역사논총』47, 2015.

제2조 하기의 장소를 제1개교지로 하고 점차 포교 지역 확장을 꾀하기로 한다.

경기도 경성, 용산, 인천
경상남도 부산
평안남도 평성
평안북도 용암포
충청남도 대전

이상의 장소 이외에 포교가 필요하거나 혹은 개교에 적절한 지방에 한하여 임시포교를 시작한다.

(이하 생략)

이 개교 규정에 따르면 조동종 개교의 주요 대상은 군 관계자와 일본인 거류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에게 불교를 포교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였다. 조동종의 개교 실패는 패전할 때까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1877년 일본 오타니파[大谷派]의 오키무라 엔신[奥村円心]은 부산에 개교를 한 이후 원산 별원, 인천 별원을 세운다. 일본 정부는 각 종파의 종조(宗祖) 및 중흥(中興)에게 ‘대사호(大師號)’를 하사했는데, 일본의 조선 진출과 동시에 일본 각 종파의 조선 개교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조동종은 종파 내부의 분리 독립소동으로 다른 종파에 비해 조선 진출이 늦어졌다.

일본 총천사는 1899년 동경 아사쿠사[淺草] 안쇼지[安昌寺]의 주지 와타나베 도수이[渡辺洞水]가 중심이 되어 다이토구[臺東區] 하시바[橋場]의 총천사²⁰⁾ 주지 기노시타 긴류[木下吟龍]를 맹주로 ‘조동종사립해외포교회(曹洞宗私立海外布教會)’를 설립하면서²¹⁾ 조선 진출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1901년 시즈오카현[靜岡縣]의 마추무라 료칸[松村良寛]이 부산으로 건너와서 개교를 시작하였다. 1904년 일본 조동종은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조선주재개교사(朝鮮駐在開教師)’로 임명했으나, 같은 해에 병사하였다.

일본 조동종은 조선에서의 개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당시 대만 개교사였던 오사다 간젠[長田觀禪]²²⁾이라는 엘리트를 마추무라의 후임으로 파견하였다. 그는 조동종무국 서기를 거쳐 식민지 타이완으로 건너갔다. 타이완에서 오사다의 활동기간은 9년에 이르고 그동안 타이중[臺中] 감옥의 교회사를 역임하면서 각지에 설교소를 설립하고 국어학교를 개설했다. 1903년 1월에 타이중 시에

20) 에도 삼찰(江戸三刹)의 하나로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이타바시구[板橋區]로 이전하였다. 현재는 조동종에서 이탈하였다.

21) 『曹洞宗海會開教傳道史』, 曹洞宗宗務廳, 1980, 31쪽.

22) 오사다 간젠[長田觀禪, 1870~1946]는 미야자키현[宮崎縣] 다이운지[臺雲寺] 주지, 1897~1904년 대만 대중사(臺中寺) 주지, 1904~1911년 부산 총천사 주지. 정형시인(歌人) 와카야마 보쿠수이(若山牧水)는 그의 조카이며 식민지 조선에서 지은 정형시가 있다. ‘이 나라의 산 나지막하여 사방 하늘은 아득하네 까치가 짓음’-조선동래온천에서(1927)

호국산 타이중 사[臺中寺]를 창건했다. 그는 조동종의 해외 전개에 있어 선봉이 었다. 타이중 시를 창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오사다 간첸을 조동종이 부산으로 이동시킨 것은 개교 실적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1905년 오사타는 부산에 절을 지은 뒤, 부산 아미산에 2,800평(약 9,500㎡)의 토지를 구입하였다. 1907년 드디어 부산 총천사가 정식으로 건립되었고 오사다는 조동종 조선 포교관리자로 취임하였다. 7년 동안의 조선 포교 후 오사다는 귀국하여 노베오케[延岡]의 타이운 사[臺雲寺]에 주석하게 된다.

5대 이토 다이호[伊東秦邦]는 1928년부터 패전할 때까지 총천사의 주지를 역임했고 가장 긴 시간 부산 총천사의 주지를 맡았다. 그가 조선에서 설립한 포교소가 총 34개소였고 총천사의 신도가 6,000명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조선 남부 일대에서는 최대의 조동종 사원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아 조동종 양대 본산 별원의 제9대 포교총감을 1943년 7월 17일~1945년 1월까지 수행하였고, 조동종 조선 개교에서 특히 주목할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표 2)

표 2. 부산 총천사의 역대 주지

역대	주지	재임기간
1대	무라타 료칸[村田良寛]	1903~1904
2대	오사다 간첸[長田觀禪]	1904~1911
3대	혼다 소신[本多祖信]	1911~1916
4대	후쿠카와 반류[古川蟠龍]	1916~1928
5대	이토 다이호[伊東秦邦]	1928~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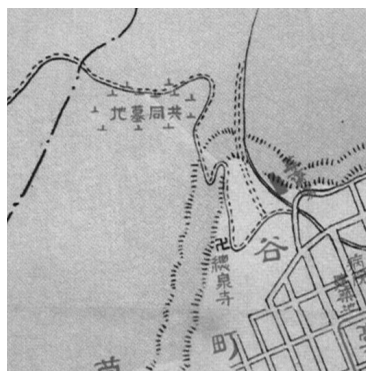


사진 6. 총천사, 『釜山府要圖』, 1936년

부산 총천사는 서울에 있는 조동종 별원과 박문사(博文寺)를 제외하면 식민지조선의 최대 일본 조동종 사원이 되었다.²³⁾(표 1) 총천사의 말사와 포교소는 부산 일대에 19개소가 있었다고 기록되어있다. 당시 총천사에 관해서 일제강점기 발행되었던 『釜山要覽』의 사원에 관한 부분에서 “峨嵋山總泉禪寺”를 소개하고,²⁴⁾ 부산의 주요 시설물을 표시한 지도에서도 곡정의 공동묘지와 함께 총천사의 위치를 표기하고 있다.(사진 6)

23) ‘조선에서 총천사의 주지라고 하면 내지의 특급 사원 이상의 주머니 사정...(하략)’ 앞의 책, 120쪽.

24) 『釜山要覽』, 釜山商業會議所, 大正元年(1912), 69쪽.

조동종이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남도 지역에 설치한 사원과 포교소는 총천사를 시작으로 일본의 패전까지 약 40여개소에 이르는데, 총천사 소속의 포교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조동종 사원 및 포교소의 설치 추이는 조선 병합(1910년), 조동종 조선포교법(1929년), 만주사변(1932~1933년), 중일전쟁(1937년)과 같은 주요사건과 관련하여 대륙병참기지가 된 식민지 조선에 많은 포교소가 개설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조선 진출과 동시에 종교단체의 개설을 서둘렀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점이고, 부산지역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표 3) 이들 사원과 포교소의 실제 포교 활동은 설립 인가된 일자여서 기록된 이전부터 이루어졌을 것이다.

표 3. 부산지역 총천사 사원 및 포교소²⁵⁾

연번	설치년월	명칭	장소
1	1907.04.	총천사(總泉寺)	경상남도 부산부 곡정 2정목 89번지
2	1915.12.13.	부산 총천사 부산진포교소	경상남도 부산부 범일동 28번지
3	1934.09.09.	조동종 대신정포교소	경상남도 부산부 대신정 1088
4	1936.01.31.	총천사 관음당포교소	경상남도 부산부 초량정 142
5	1937.01.10.	조동종 해운대포교소	경상남도 동래군 남면 중리 1197-3
6	1938.05.05.	총천사 대감리포교소	경상남도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38
7	1938.07.15.	총천사 완월동포교소	경상남도 마산부 완월동 150
8	1938.07.15.	총천사 온천리포교소	경상남도 동래군 동래면 온천리 산193
9	1938.07.15.	총천사 신천리포교소	경상남도 동래군 기장면 신천리 산20
10	1938.07.15.	총천사 이천리포교소	경상남도 동래군 일광면 이천리 산34
11	1938.07.15.	총천사 초량정포교소	경상남도 부산부 초량정 853
12	1939.01.24.	총천사 동면 용강리포교소	경상남도 창원군 동면 용강리 289
13	1939.04.10.	총천사 영주정포교소	경상남도 부산부 영주정 93
14	1939.04.10.	총천사 거제리포교소	경상남도 동래군 동래읍 거제리 1396
15	1941.05.20.	총천사 온천장포교소	경상남도 창원군 북면 신촌리 산 230
16	1941.05.20.	총천사 신안리포교소	경상남도 김해군 진례면 신안리
17	1941.05.29.	총천사 옥포리포교소	경상남도 통영군 장승포읍 옥포리
18	1941.06.10.	총천사 범방리포교소	경상남도 김해군 녹산면 범방리
19	1941.06.10.	총천사 장산포교소	경상남도 동래군 남면 좌리 산 64
20	1943.09.05.	총천사 교리포교소	경상남도 양산군 물금면 교리 867
21	1943.09.09.	조동종 당리포교소	경상남도 부산부 사하당리 산55
22	1943.09.09.	조동종 평리포교소	경상남도 부산부 사하평리 산34
23	1943.12.02.	총천사 연지리포교소	경상남도 부산부 연지리 359
24	1944.11.30.	총천사 민락리포교소	경상남도 부산부 민락리 산84

25) 『조선총독부 관보』와 이치노헤 쇼크, 『조선 침략 참회기』 [자료1]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 법회와 장례

일본 조동종이 조선에 개교를 했을 당시, 조선인을 포교대상에 포함했지만 주된 포교 대상은 일본인이었다. 총천사가 당시 부산 곡정에서 개소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당시 신문자료에서 총천사 관련 기사를 찾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표 4)

표 4. 1910~1940년대 총천사 관련 신문기사

년도	월-일	내용	신문
1914	05-14	총천사 기념종 주조	매일신보
1915	01-13	총천사의 부엌 건축	부산일보
	05-13	말세의 파계승(5) 총천사 주직 本多祖信	부산일보
	05-14	말세의 파계승(6) 총천사 주직 本多祖信	부산일보
	05-15	말세의 파계승(7) 총천사 주직 本多祖信	부산일보
	05-16	말세의 파계승(8) 총천사 주직 本多祖信	부산일보
	05-16	총천사의 관음대계	부산일보
	05-18	말세의 파계승(9) 총천사 주직 本多祖信	부산일보
	05-19	七福落籍物語(1) 총천사 주직 本多祖信	부산일보
	05-20	七福落籍物語(2) 총천사 주직 本多祖信	부산일보
	05-21	七福落籍物語(3) 총천사 주직 本多祖信	부산일보
	05-22	七福落籍物語(4) 총천사 주직 本多祖信	부산일보
	05-23	七福落籍物語(5) 총천사 주직 本多祖信	부산일보
	05-26	七福落籍物語(6) 총천사 주직 本多祖信	부산일보
	05-27	七福落籍物語(7) 총천사 주직 本多祖信	부산일보
	05-28	七福落籍物語(8) 총천사 주직 本多祖信	부산일보
	05-29	七福落籍物語(9) 총천사 주직 本多祖信	부산일보
	05-30	七福落籍物語(10) 총천사 주직 本多祖信	부산일보
	08-12	총천사에 기부	조선시보
	10-11	총천사 분교소 1주년 기념 법요	부산일보
	10-14	1주년 기념 법요; 부산진 총천사 분교소	부산일보
1916	04-06	총천사 스님을 사칭해 재산을 탈취	부산일보
	07-17	총천사의 관음강	조선시보
	07-18	총천사 관음강	부산일보
	10-04	아미산 총천사의 법회	부산일보
1917	04-08	총천사의 변화; 各宗 연합 석존강탄회	부산일보
	04-29	<사원과 교회>멘지스토교회, 일본기독교회, 서본원사	부산일보
1918	02-13	총천사 열반기	부산일보

년도	월-일	내용	신문
	03-21	총천사의 彼岸會	조선시보
	03-27	총천사 참배단	조선시보
	05-17	18일 총천사에서 관음제	부산일보
	08-04	밤바다를 물들이다, 大施餓鬼;총천사의 水難供養	조선시보
	09-26	부산 곡정 총천사의 수해 施餓鬼;용궁성과 같은 정령	부산일보
	12-06	부산 총천사 석존성도회	부산일보
1920	03-23	총천사의 彼岸會	조선시보
	04-30	애처로운 2개의 관, 총천사에서 내일 하루 시행	조선시보
1924	09-18	부산해군묘지 매장자의 제전;19일 총천사에서	조선시보
	09-20	총천사의 해군제전	조선시보
	09-21	묘앞의 松村사령관, 총천사의 해군제전	조선시보
	10-03	총천사의 달마기	조선시보
	10-07	총천사의 달마기, 달마로 인한 여러 가지 진열	조선시보
1925	02-26	곡정 총천사 춘계대제 집행	부산일보
	05-11	총천사의 대법요	부산일보
	05-12	총천사의 관음법요;17일 수행	조선시보
	05-16	총천사의 관음대제;내일 17일 집행	부산일보
	05-17	총천사의 관음공양;17일집행	조선시보
	05-17	총천사의 관음법요와 대강연회;17,18 2일간	조선신보
	05-23	百英師 대강연회;오늘 오후2시 총천사, 오후8시	부산일보
	06-09	貫主를 영접하여 親修大法要;총천사에서 집행	조선시보
	06-20	北野 조동종 관장;다수의 신도가 맞아 부산에 와	부산일보
	06-20	滿鮮巡錫 마친 北野대선사 부산, 총천사에서 친교를	조선시보
	06-29	四恩婦人會 총천사의 강연회	부산일보
	07-24	수년내 분요를 거듭한 총천사의 토지 문제	부산일보
	07-24	'원만'으로 해결을 알린 총천사의 '토지문제'	조선시보
	08-04	총천사 부인회에서 수해지까지 '위문품', 古川주지	조선시보
	09-23	영령을 조문하는 見塚사령관과 총천사에서의 공양	부산일보
	09-29	총천사 사은부인회	부산일보
	09-30	총천사의 달마기, 다음달 4일에 개최	부산일보
	09-30	총천사 달마기 10월4일 집행	조선시보
	10-05	총천사 달마기 성황을 이루다	조선시보
	11-18	관음강 부인회 오늘 총천사에서	부산일보
1926	01-26	총천사부인회예회	조선신문
	02-13	총천사 열반회, 14일 집행	조선시보
	02-28	총천사 풍천예제 3월1일 同寺에서	조선시보

년도	월-일	내용	신문
	04-02	일요학교창립 5주년, 총천사에서	조선시보
	08-18	신작영화, 시대극 讎討총천사 야화	조선신문
	09-26	총천사 기안회	조선시보
	10-04	총천사의 달마회	조선시보
	10-04	내일 5일 오전11시부터 총천사에서 달마회	부산일보
	10-05	총천사의 달마회	부산일보
	10-06	총천사 달마기	부산일보
	10-30	부산총천사 明照부인회원 본사견학	부산일보
	12-07	총천사의 부처님 성도 법요	조선시보
1927	02-04	총천사의 禪會	조선시보
	02-15	총천사 奉悼會	조선시보
	02-22	총천사 坐禪會	조선시보
	04-19	총천사 사은부인회의 야유	부산일보
	04-20	총천사의 불심좌선례회	부산일보
	05-17	총천사의 관음대제 법요	조선시보
	10-16	관음부인회 가을모임 17일 총천사에서	부산일보
	10-27	총천사의 달마기일, 오는 30일	부산일보
	12-11	石선사 요배식 금일 총천사에서	부산일보
1928	01-20	총천사 사은부인회 신년회	부산일보
	03-29	총천사 기념대회	조선시보
	05-17	총천사의 관음법요와 대강연회;17,18 2일간	부산일보
	07-31	성실한 중견부인 8일부터 총천사에서 강습회	조선시보
	10-03	총천사의 달마 법요	부산일보
	11-09	새전함을 노린 도적, 총천사에서 현장잡다	조선시보
1929	01-20	高階총독 부산방문;총천사에서 강연	부산일보
	01-21	北村翁 추도회;21일 총천사에서	부산일보
	08-07	경남 중견부인강습회 총천사에서	부산일보
	08-18	부산부내 소학교,보통학교 아동의 靈祭, 21일 총천사	부산일보
	08-21	혼제와 독경대회, 총천사에서	부산일보
	08-23	소학아동의 영제, 총천사에 모여	부산일보
	12-06	총천사 성도회	부산일보
1930	10-28	재해입은 진해안국사 재건, 부산총천사를 통해 교섭중	조선시보
1931	02-08	童活대회 총천사 日少협회	조선시보
	02-14	부산총천사 열반회	조선시보
	09-11	추기 불교강연 11일밤 총천사에서	조선시보
	11-30	만주사건희생자 12월1일 추도회, 부산 곡정총천사에서	조선시보

년도	월-일	내용	신문
1932	02-01	선도수양회 부산총천사 계획	조선시보
	09-20	곡정총천사 선도수양회, 오늘부터 3일간	조선시보
	11-01	총천사 벼추수대제	
	11-12	총천사 선도수양회	부산일보
1933	05-16	총천사의 관음대제	부산일보
	09-01	관동대진재 기념일 총천사 개최	부산일보
1934	05-16	총천사 관음대제, 향응과 御詠歌합창	조선시보
	07-25	총천사 燈籠流, 연기될라	조선시보
	09-08	내선불교의 융합 제1보, 곡정 총천사의 노력	부산일보
	09-09	내선불교 융합통일 노력, 곡정, 남부민정 총천사포교소 신설	조선시보
	09-14	대선사를 맞아 총천사 기념식-10월3일부터 1주간	부산일보
	09-20	부산총천사 개창 30주년 10월3일~9일, 기념법요를 거행한다	조선시보
	10-04	총천사30주년, 3일~ 1주일간 기념법요	조선시보
	10-04	伊東 주직의 晋山式, 총천사에서 大式典-개창 30주년	부산일보
1935	02-22	伊東 총천사 주직의 음덕	부산일보
1937	12-01	총천사의 참선회(주직 伊東泰邦)	부산일보
1938	10-04	하숙(下條信雄)상등병 개인장례, 총천사에서	부산일보
1939	03-28	1만그루 매화 총천사에 식수	조선시보
	09-08	세관장외 전원 매일아침 좌선회 개최, 加藤和尚을 초청	조선시보
	10-24	총령탑 건설비에 제일선에서 기부, 총천사주지伊藤泰邦	조선시보
	12-08	가토(加藤) 전 선은총재 추도회, 7일 총천사에서	조선시보
1940	02-06	평단-결사좌선회가 끝나는 기대하는 바 크다, 三顧生	조선시보
	07-25	총령탑건설기금모집의 보국연예밤, 27-28일 부산극장에서	조선시보
1941	09-18	총천사의 기념 법요	부산일보
1942	05-15	관세음 공양법회, 총천사에서 16일부터	부산일보
	09-03	立石良雄씨 서거 1년, 총천사에서 1주기 법요	부산일보
1944	03-18	해운대 총천사별원에서 강연에 감격의 헌금	부산일보
1946	08-07	독촉 곡정청맹 결성	부산신문

총천사에서 행해진 법회 가운데에서 매년 5월 16일~18일 사이에 거행된 관음법요가 가장 큰 연례행사로 대강연회와 함께 진행되었다. 1915년~1942년 사이의 신문기사에서 거의 빠짐없이 법요 소식이 확인되고 있어 패전까지 매년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총천사의 사원 모습, 봉안된 불상 및 불화 등을 알 수 없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던 아미초등학교에 남아있는 석조불상이 관음보살상의 도상인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신문기사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총천사

에서 관음법회가 1910년대부터 이미 매년 정기적으로 5월에 진행되었던 것과 석조관음보살상의 존재는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 또한 부산 총천사에서는 10월에 달마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석존성도회를 정기적인 법요 행사로 진행하였다.

총천사에서 내선불교 융합을 일선으로 부산 해군묘지 매장자의 제전을 총천사에서 거행하고, 총령탑 건설비에 앞장서서 기부(1939~1940년)하는 등의 일련의 행보는 모두 국가의 방침에 따라 전쟁에 협력함으로써 총천사를 발전시키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은 조선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청일전쟁(1894년)을, 러시아를 배제하기 위해 러일전쟁(1904년)을 일으켰고 이 두 전쟁은 조선의 독점 지배를 노린 것이었다. 조동종은 이러한 전쟁에 대해 성스러운 일을 만난 것에 감격해야 한다며 전쟁에 협력하며, 출정군대의 전승을 위한 기념법회를 주도하여 선전하였다.

이와 같이 조동종 총천사는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곡정의 일본인 공동묘지와 화장장에 위치하여 일본 사찰 특유의 장례업무를 함께 전담했다. 현재 일본의 사찰이라고 하면 묘지나 공원묘지를 연상하고, 스님이라고 하면 장례에 종사하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실제 도다이지[東大寺]나 엔라쿠지[延曆寺]와 같은 관사의 계보를 잇는 큰 절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공동묘지가 없었다. 그러한 사찰에 사는 관승(官僧)은 초상집에 가서 부정타는 일을 피해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천황의 장례 등에는 종사했지만 더러운 시체에 접촉함으로써 30일씩이나 근신해야 했다. 승려가 장례에 적극적으로 종사하게 된 것은 가마쿠라 신불교 교단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계율경시와 장례불교라는 일본 불교의 특징이 모두 가마쿠라 신불교에서 유래한다. 한편, 장례 종사, 묘소 경영, 장례의식 주최, 단가(檀家)제도에 안주하여 개인의 구제희망에 응하려 하지 않는 일본 불교를 ‘장례불교’라고 일컫기도 한다.²⁶⁷

개항 이후 동본원사별원은 부산의 일본조계지의 장례절차를 줄곧 도맡아서

²⁶⁷ 마츠오 겐지[松尾剛次] 지음·김호성 옮김, 『인물로 보는 일본 불교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29~32쪽. ‘장례불교’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스님과 만날 기회가 장례식이나 기제사의 법사 등으로 한정되어있다는, 스님이 묘지의 관리자가 되고 있다는 현재 스님의 존재방식을 언급하는 것이다. 승려가 장송(葬送)에 종사하게 된 것은 가마쿠라 신불교를 담당한 기수인 둔세승 교단에 의해 이루어진 획기적인 일이며, 사상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관승과 둔세승 간의 차이점 중 하나가, 장송에 종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이다. 관승과 둔세승 간, 장례의식에 대한 이러한 차이를 낳은 배경은 부정을 타는 것, 특히 사예(死穢)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사예를 두려워한 나머지, 가난하고 고독한 승려나 혈연없는 고용인들이 죽는 경우 절 바깥 또는 저택 바깥에 내버려졌고, 심한 경우에는 길가나 강변 같은 곳에 유기되었다. 둔세승들은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였으므로 장례의식에서도 사예를 꺼리지 않았고, 둔세승들의 사원 경내에는 묘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화장장을 선점하여 운영했지만, 1906년 공동묘지의 이전으로 부산에서 납골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게 된 사원은 곡정 총천사로 변하게 되었다. 일본 조계지 초창기부터 화장장을 운영했던 동본원사에 보관된 유골의 수는 세 번째에 불과하고, 가장 큰 납골 장소는 총천사였다.(표 5) 비록 납골의 수가 신도의 수와 직결되지 않지만, 특히 곡정(아미동) 공동묘지의 이전, 화장장의 설치로 부산에서 일본인들이 자주 찾는 사원 중 하나로 위세가 커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²⁷⁾

표 5. 부산 일본 사원의 납골 수량²⁸⁾

장소	일본 사원	납골 수량
곡정	총천사	1,500
대청정	금강사	1,300
서정	동본원사	1,000
영선정	본원사	800

IV. 맺음말

일본 조동종은 식민지 조선에서 명성황후 시해를 비롯하여 청일·러일전쟁에서 승려들이 침략의 침병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10년 한일병탄을 기념하여 축하 법요를 선봉적으로 봉행하였고, 이토 히로부미의 호와 이름을 사용한 춘무산 박문사(春畝山博文寺)를 세웠다. 전북 군산에는 일제강점기 조동종 사찰이었던 동국사(금강사로 설립)가 현재까지 남아있고, 조선 유일의 일본식 사찰로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있다.

일제강점기 일본 종교는 국가신도를 비롯하여 불교, 교파신도, 기독교 등 각 종단의 수많은 교파가 조선에 그대로 유입되었는데 그 많던 종교는 해방과 동시에 사라졌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조선 내 일본의 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각 종교별로 면밀히 따지지 않더라도 추론할 수 있는 점이다. 국가와 종교의 결탁, 특히 일본 불교단체는 교단 발전을 위해 국가에 적극 동조하였던 상황이었다. 더욱이 일본 종교시설은 식민지 잔재 제거의 우선 순위가 되었음은 당연한 결과

²⁷⁾ 송혜영, 『일제강점기 부산 아미동 화장장의 설립과 변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4(5), 2018, 90쪽.

²⁸⁾ 송혜영, 위의 논문, 90쪽 table1 재인용

였을 것이다.

부산 곡정 총천사는 일본 조동종이 조선에 개교한 최초의 사찰로서, 일본인 공동묘지와 화장장이 있던 곡정에 위치하여 일본인을 위한 장례업무를 주로 전담하며 일본인 사회에 공조하였다. 특히 총천사는 일본의 전쟁을 합리화하는 데 앞장서서 내선불교를 내세우며 일본인의 전쟁 참전자를 위한 법회 및 충령탑 건립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이러한 부산 곡정 총천사는 부산지역에 많은 포교소를 건립하여 오직 일본인을 위한, 일본 정부를 위해서 일본 불교 조동종의 역할을 조선 땅에서 해방 전까지 굳건히 했다.

일제강점기 부산 곡정 총천사가 있었던 자리에 해방과 함께 교육시설이 들어섰고, 아미초등학교가 지금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학교 뒤편 보이지 않는 능선에 석조보살상과 ‘수호탑’이라는 석조기단, 기타 석재편이 남아있고 주변의 안내판으로 과거 총천사가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고, 이 보살상과 석조기단은 조선의 불상과는 전혀 다른 형식이어서 일제강점기 총천사의 불상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 불교의 흔적 찾기는 그 시절을 살아보지 않았던 현재의 우리에게, 때로는 기억하고 쉽지 않은 우리의 과거를 담아서 다음 세대에 기억하도록 전하는 역사 찾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총천사의 보살상이 언제까지 남아있을 지는 모를 일이지만, 그대로 두느냐 없애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대상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 총천사에 관한 여러 신문 기사를 조사하여 확인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 분석과 해석이 진행되지 못한 점을 다음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투고일 2020년 09월 13일 |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03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13일 ■

참고문헌

- 『釜山古地圖』, 부산광역시, 2008.
- 마츠오 겐지[松尾剛次] 지음·김호성 옮김, 『인물로 보는 일본 불교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 미노와 겐표[菘輪顯量] 지음·김천학 옮김, 『일본 불교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 와타나베 쇼코[渡邊照宏] 지음·김진만 옮김, 『일본의 불교』, 소화, 1995.
- 이치노헤 쇼코[一戸彰晃] 지음·장옥희 옮김, 『조선 침략 참회기』,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 이숙희·이경화·최은령, 『근대개항도시의 불교문화 자취』인천역사문화총서87, 인천광역시, 2019.
- 홍순권, 『일제시기 재부산일본인사회 사회단체 조사보고』, 선인, 2005.
- _____, 『일제시기 재부산일본인사회 주요인물 조사보고』, 선인, 2006.
- 김순석, 『개항기 일본 佛敎 宗派들의 조선 침투-일본 寺刹과 別院 및 布敎所 설치를 중심으로』, 『조선독립운동사연구』제8호, 1994.
- _____,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김귀한, 『한말 일제초 일본 조계종의 조선 포교활동과 불교계의 대응』,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윤환·한현석, 『해항도시 부산의 일본인지역사회 형성과 종교-지역과 국가의 관점에서 본 불교와 신사』, 『해항도시문화교섭학』11, 2014.
- 송혜영, 『일제강점기 부산 아미동 화장장의 설립과 변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34(5), 2018.
- 윤기엽, 『개항기 일본 불교의 포교양상과 추이』,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54, 2012.
- 이경화, 『일제강점기 목포 유달산의 弘法大師像과 88靈場』, 『동북아역사논총』47, 2015.
- 전성현, 『‘조계’와 ‘거류지’사이-개항장 부산의 일본인 거주지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입장 차이와 의미』, 『한일관계사연구』62집, 201.
- 최병현, 『일제의 침략과 불교-일본 曹洞宗의 武田範之와 圓宗』, 『조선사연구』114, 2001.
- 최연주, 『일본의 부산 북빈매축과 비석마을』, 『일본근대학연구』59, 2018.
- 최은령, 『부산 옛 충천사지에 남겨진 불상(자료소개)』, 『불교미술사학』제25집, 2018.

Abstract

Japanese colonial era A Study on the Chongcheonsa of Gokjeong in Busan

Choi, Eun-Ryung

Chongcheonsa Temple in Busan was the first temple to be opened in Korea by the Japanese Jogye Order. The location of the Chongcheonsa Temple is Gokjeong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dministrative district, where the Japanese cemetery and crematorium were located.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 the Japanese built a cemetery in Bokbyeongsan Mountain, which was close to the city's capital, and relocated the Japanese military's Busan Guard and the cemetery in 1907 to maintain the city's area. The Japanese cemetery on Bokbyeongsan Mountain was relocated to Gokjeong, and a crematorium for the latest facilities was built.

Currently, Biseok Culture Village in Ami-dong, Seo-gu, Busan, is located in the Gokjeong Cemetery, where the ARMY Elementary School was located. Ami-dong Biseok Culture Village was transformed into a residential area after the Korean War, where refugees gathered to live. It is now known as Busan's representative mountain corridor village, and the spatiality of the site, which has been formed since Japanese colonial era, has attracted many researcher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history, architecture, and folklore.

The Gokjeong area, where the Chongcheons were located, is a place of death consisting of Japanese cemeteries and cremation facilities, and the fact that the Chongcheons were the only religious facilities makes us wonder about their existence and role. At that time, it was common for religious facilities in Japan to be located adjacent to the Japanese

residence, and the same was true of other Buddhist sects.

The Gokjeong Chongcheonsa Temple in Busan was the first temple to be opened in Joseon by the Japanese Jogye Order. It was located in Gokjeong, where the Japanese cemetery and crematorium were located, and mainly dedicated to funeral services for the Japanese people and cooperated with the Japanese community. In particular, the general angel took the lead in rationalizing the war in Japan and actively cooperated in the construction of a court and the Chungryeong Tower for Japanese war veterans. The Gokjeong Chongcheonsa Temple in Busan established many mission centers in the Busan area, solidifying the role of the Jogye Order of Japanese Buddhism only for the sake of the Japanese people and for the sake of the Japanese government until the liberation of Joseon.

Japanese colonial era Education facilities were built with liberation on the site of the general angel of Gokjeong in Busan, and Ami Elementary School has remained there until now. A stone statue, a stone base called the Suho Tower, and other stone sculptures remain on the invisible ridge behind the school, and the surrounding information boards indicate that the statue and stone base were in a completely different form from those of Korea, suggesting that it was a Buddha statue of Japanese colonial era's general angel. In this paper, we could not discuss in detail the events and figures that appeared in the newspaper articles of the general angel of Busan, but we would like to leave them as assignments.

Key Words : Japanese colonial era, Busan, Jodongjong, Chongcheonsa, Gokjeong, crematorium, cemetery, stone statue

